

정보화 정책 관련 용어

원 동 규 | mirr@dkwon@kisti.re.kr

지식인프라 정책연구실 실장

1. 정보자원관리(IRM : 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

IRM(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이란 개념은 미국 커터 행정부 때 만들어져서 레이건 행정부에 의해 IRM전략으로 심화되어진 개념으로 서류작업과 기록 관리, 데이터처리와 원격통신 관리 때로는 도서관과 정보 서비스 권리를 포함한다. 즉 IRM은 과거에 주로 통용되었던 정보관리 기능을 통합한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정부 정보와 관련된 기획, 예산, 조직, 지도, 교육, 통제 작업"을 말하며 정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개념이다. 일반적인 정보관리와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IRM은 정보 내용을 강조한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권리는 기존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기술적인 측면에 강조되었던 데이터 베이스 관리와는 다르다. 즉 "컨텐츠의 질"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둘째, IRM은 기획과 운영을 통합한다. 즉 전략적 사업 기획을 조직(혹은 넓은 의미로는 국가)의 IRM 기획과 연결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IRM 기획수립을 조직의 전략과 운영 수준에 통합하고자 한다. 목표는 다양한 기획수립과 지침 설정을 통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면서 운영 수준에서 시스템의 상태와 구현을 지원하는 것이다. 즉 IRM 기획과 사업 기획의 연결은 IRM 효과를 측정하는 핵심 수단이다.

셋째, IRM은 통합 정보 기술을 다룬다. 즉 기관내부의 입장에서는 데이터처리, 원격통신, 사무자동화의 통합관리를 의미하며, 국가차원에서는 정보인프라간 통합연계 활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IRM은 정보정책을 중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정책의 개념은 정보 자산과 자원의 관리를 위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때의 정보 정책은 데이터, 정보 처리 장비와 소프트웨어, 정보 시스템과 서비스, 조직인의 역할 및 책임을 그 범주로 삼고 있으며, 각 범주에 따른 정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데이터: 정보의 취득, 생성, 소유, 가용성, 무결성, 보안 등에 관한 내용 장비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취득, 유지관리 사용, 대체 기술적 통합을 규정 및 기술 표준의 지정에 관한 내용 시스템과 서비스: 조직의 필요에 부합한 시스템 및 서비스의 구축에 관한 내용 조직인: 정보 자산과 자원 관리의 모든 측면에 있어서 관리용, 기술요인 및 사용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내용으로 주로 데이터와 기술 통계를 사용자에게 가깝게 놓는 분산 정보 환경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정보 내용과 정보 기술에 대한 책임을 분산시켜 주고 있다.

한편, 정보자원관리(IRM)가 새로운 것이냐, 아니면 데이터 처리 관리나 경영정보시스템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문제도 논란이 많았다. 사실 이 모든 분야는 상대 분야의 아이디어를 빌려와서 좀 더 유용한 방향으로 진전시켜 왔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일반적으로는 데이터 처리 관리에서 MIS 그리고 IRM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물론 MIS의 전통 속에 있다고 지부하는 사람들도

에 의해 오늘날 IRMI이 실현되고 있을지라도 기존 MIS에서 IRM으로의 진화는 계속되고 있으며,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IRM은 용어와 범주는 틀릴지라도 더욱 세련된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2. 지식정보(Knowledge Information)

일반적으로 지식 인정제에 관한 논의에 있어 지식은 다음 네가지 지식으로 구분된다(OECD). 첫째, 어떠한 사실에 관한 지식(know-what) 둘째, 기술혁신에 있어 그 원인이 되는 사물의 이차나 현상의 원인에 대한 과학적 지식(know-why) 셋째, 주어진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기술을 의미하는 노하우(know-how), 마지막으로 누가 무엇을 알고 누가 어떤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지식을 지칭하는 사람에 관한 지식(know-who) 등이다. 그리고 이 네가지 지식 중 처음의 두가지 지식은 디지털화되어 여러 사람들에게 비교적 용이하게 공유·전달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형식화된 지식(혹은 명시적 지식)이라고 하며, 나머지 두가지 지식은 지식습득에 오랜 시간이 요구되고, 축적이 어려울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가항인의 두뇌와 조직에 체화되어 있어 다른 사람에게 이전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서 암묵적 지식이라고 한다.

한편, '지식'이라는 용어가 '정보'라는 용어와 함께 사용될 경우에는 암묵적 지식만을 의미하지만 '지식'이라는 용어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 그때의 지식은 암묵적 지식과 형식화된 지식(=정보)을 모두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지식정보(혹은 지식·정보)'라고 할 경우는 이를 더욱 명시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지식기반 경제(Knowledge Based Economy)

지식기반 경제(knowledge based economy)란 지식의 생성, 분배 및 활용에 직접적인가치를 둔 경제라는 뜻으로 사용되며 개인, 조직, 기업, 국가 등에서 지식이 보다 효율적으로 창출, 획득, 확산, 활용되는 것에 의해 보다 큰 경제 사회적 성과를 얻는 경제 체제를 의미한다. 이러한 지식기반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한다.

- 효과적으로 정보를 창출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정보 인프라 구축
 - 새로운 지식의 창출과 활용을 가능케 하는 교육 시스템
 - 지식 활용의 유인(incentives)을 제공하는 경제적·제도적 장치
 - 기업, 과학기술 센터, 대학, 연구소 및 기타 조직들을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축적된 지식의 효율적 활용을 가능케 하는 국가 혁신 체제의 형성
- 한편, 지식기반 경제는 지식과 정보의 원활한 획득과 뛰어난 활용 능력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경제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지식과 정보의 획득, 유통, 축적은 컴퓨터와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를 디지털 경제라 한다. 따라서 디지털 경제는 지식 인정제의 물리적 기반이 된다는 관점이 성립한다. 한편, 인터넷 경제란 주요 경제 활동이 인터넷상의 가상 공간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경제를 뜻하는 것으로 좁은 의미의 디지털 경제이다.